

쇠고기 이력추적제 모범 연계사업장을 찾아서 롯데마트 창원점

부산경남시역본부 과정 이대용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됐다.

2004년 시범실시 이후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이해하고 참여 중인 연계사업장이 금년 5월 20일 기준 총 648개이며 이중 판매점은 434개로 동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롯데마트 창원점(경남 창원시 두대동 시티7 내 소재, 점장 강경구)은 '07년 5월 17일 지정이후 단기간 내 높은 시료검사 일치율과 혼입 방지 및 개체관리를 위한 자체 개체관리 매뉴얼 개발 등 입고이후 판매까지 개체 관리에 탁월함을 보이는 판매장이다.

창원점의 탁월한 개체관리의 비결로는, 첫째 개정이후 직원의 이직이 없고, 둘째 등급판정소에서 제시한 판매업소 준수사항에 창원점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입고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 마다 확인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셋째 판매장 전직원 모두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냉장실에서 정육 보관 시 부위별 관리가 아닌 개체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고 이후 세절 등 각 공정마다 정육과 개체식별번호 라벨이 반드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육판매 쟁반 뒷면에 라벨을 또 하나 붙여 확인 관리하고, 식육판 대표시판과 전자저울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입력할 때 각별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김성수 팀장과 26명 직원의 일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과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 같은 매장 분위기에서 점점 발전하는 롯데마트 창원점을 미리 엿 볼 수 있었다.



(롯데마트 창원점 직원들)